

충북도 정신건강 복지서비스 강화한다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정신질환자 지원 조례안 등 처리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위원장 박상돈)는 13일 제1차 전체회의를 열어 '충북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 5월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는 충북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충북도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조례 제정은 타인의 생명 존중과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자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조례안을 보면 도지사는 도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정신질환자의 재활과 장애 극복, 사회

회적응 촉진에 필요한 조치도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등의 지원 계획은 장애인 정책 종합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했다.

정신건강 증진 사업에 관한 자문·지원을 위해 충북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했다.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 등을 위해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정해 교육·홍보사업을 시행한다.

현재 충북에는 정신장애 환자 16만

68명, 알코올 사용장애 환자 4만7079명, 기분장애 환자 2만5557명, 조현병 스펙트럼 장애 환자 2690명(이상 추정)이 생활하고 있다.

등록 장애인 수는 2012년 3520명, 2014년 3600명, 2017년 3698명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시니어클럽 설치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확보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현재 미설치된 시·군에 시니어클럽이 조속히 개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충북도, 시간제 보육 기관 확대 · 야간 운영 모색

도내 11개소서 제공... 월 평균 430건 이용

충북도는 5월 29일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제도 개선 사항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가 병원이용 등 갑작스러운 불일이 생겼거나, 단시간 근로 등으로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할 때 아이를 시간단위로 맡기는 서비스다.

이용대상은 보육료 또는 유아학비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로, 도내에서 월 50명 정도의 영아(월 평균 이용건수 430건)가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평일(월~금요일) 9시부터 18시까지 월 80시간까지 가능하며, 보육료는 1시간당 4천원으로 가정양육수당 대상영아는 3천원의 정부지원금이 지원되어 1천원만 지불하면 된다.

홍기운 도 복지정책과장은 "더 많은 부모님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여 양육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군별 수요를 고려하여 제공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봄새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한 야간(18시~22시) 시간제 보육반 운영 등 제도개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보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충북도는 11개소의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 1일 전까지 온라인(인심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또는 전화신청(☎1661-9361)이 가능하며 이용당일은 15시까지 전화신청만 가능하다.

충북 민·관 정책포럼서 7개 분야 제안... 돌봄·일자리 '화두'

5월 2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참여와 혁신의 정책 한마당' 좋은 돌봄·좋은 일자리 마련 위한 복지·공공혁신 주제발표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제정 등 제시

도민이 도정에 반영할 정책제안을 하는 '충북 민·관 합동 정책포럼'이 5월 2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이날 포럼은 도정 정책자문단(위원장 남기헌)의 주관으로 복지, 공공혁신, 문화예술, 농업, 여성, 환경, 사회적경제 등 7개 분야에 대한 주제발표, 라운드테이블 토론 등이 진행됐다.

이날 자리에서는 성혜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연구원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박상호 충북여가포럼 정책이사 "충북도민 여가지원 추진체계 마련", 조혜경 충북여성회 대표 "실질적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지역 특화전략 추진/지원", 이효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국장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인사청문회제 도입 및 감사위원회 설치", 하재찬 충북사회적경제협의회 사무국장

"당사자 주도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이 나왔다.

복지분야에서는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돌봄중사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자격관리 제도 정비의 3가지 세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에서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3년 기획사업으로 진행된 '돌봄중사자 건강권 지원사업'이 올해 종료됐다.

또한 사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을 전달하였다.

민·관합동 정책포럼은 도정 정책자문단, 도내 다양한 개별 포럼, 민간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로 매년 2015년 도입됐다.



'충북 민·관 합동 정책포럼'이 5월 23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성혜원 연구원의 발표모습(위), 참석자들의 토론모습(아래)

충북도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 설치한다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올 하반기부터 수행기관 선정·운영

충북도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학대피해 장애인 쉼터(이하 '쉼터') 공모에 선정되어 운영 위탁기관을 결정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도는 지난 5월 복지부 쉼터 설치 공모에 신청하였고 이번 선정으로 매년 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인권침해, 학대피해 장애인을 위한 긴급 주거 지원과 사회복귀를 위한 시설이다.

한편, 쉼터는 학대피해 장애인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분리가 필요함에도 지난해까지 도내 쉼터가 없어 타 시도 쉼터 이용으로 해당 주소지 시·군,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으로부터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

도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수행기관 모집공고와 선정위원회를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도내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을 확보·설치하기로 했다.

또 피해 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학대 행위자와 관련자의 연락, 방문을 제한하고 심리적 안정과 사회복귀를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 일상생활 훈련,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을 보다 더 밀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취약계층 공공시설 요금 자동할인, 7개 지자체로 확대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등 7곳

장애인 등이 증명서를 따로 내지 않아도 공공시설 이용요금을 알아서 할인해주는 서비스가 전국 7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자동화' 사업에 응모한 지자체 가운데 부산·대구·광주·대전·세종·충북·전북 등 7곳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확인 서비스는 장애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이 지자체나 공사·공단이 운영하는 주차장, 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간단한 본인동의 절차만 거치면 할인 혜택 적용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2017년에 처음 개발된 인천공항공사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18개 기관에서 시범운영을 했고 이번에 지자체 대상 공모를 통해 7개 지역을 선정해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7개 지자체는 올해까지 시스템 구축 등 준비 작업을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자동 감면자격 확인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제3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나비새김! 존중받는 어르신을 나의 마음에 새긴다

충북도는 14일, 충청북도미래여성플라자에서 노인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노인학대예방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충북도가 주최하고 충북북부노인보

호전문기관이 주관한 이날 행사는 1부 유공자표창, 노인인식개선 사진&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자 시상, 나비새김 세례모니, 2부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부대행사로 노인인식개선 사진&캘리그래피 공모전 수상작 전시회 등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되었다.

"나비새김"이란 존중받는 어르신을 "나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로써, '나비'는 노인학대의 위험에서 벗어나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을, '새김'은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을 잊지 않고 나의 마음에 새긴다는 의미의 노인학대예방 슬로건이다.

매년 6월 15일은 2006년부터 UN에서 '세계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지정한 날로, 우리나라는 범국민적으로 노인학

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제정 '15.12.29, 시행 '16.12.30)을 통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했다.

이장섭 충청북도 정부부지사는 이날 격려사를 통해 "노인학대 위험에서 벗어나 존중받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의 마음을 도민 모두의 마음에 새겨 노인학대 없는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노인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제 93회 충북사회복지포럼 개최 안내

충북사회복지협의회는 **충북사회복지신문** 발간 20주년을 기념하여 제93회 **충북사회복지포럼**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주제 '충북사회복지'신문 영향력 확대를 위한 역할과 방안
- ◆ 일시 2019. 7. 11.(목) 14:00
- ◆ 장소 다락441(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1번길 158-10)
- ◆ 참석대상 도 내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60여명
- ◆ 문의 043) 234-0840~2

진천군, 우수 지방복지 '롤모델' 부상

국가복지서 '동네복지'로... 민관 협력체계 강화 '큰 성과'

'생계·진천형 복지'로 대변되고 있는 진천군의 복지정책이 민관 협력 거버넌스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지방복지의 성공적인 모델로 부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진천군이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방복지분야에서 4관왕을 거두는 등 국가복지에서 동네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복지전달 체계

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희망복지 지원' 분야에서 짜임새 있는 사업 추진으로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이 같은 군의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정책 강화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송기섭 진천군수가 기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던 획일적인 시혜적 복지정책에서 지역주민들이 주축이 돼 지역 특색에 맞는 복지공동체 조성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있다.

군은 지난해 지역주민 참여 확대 등 민관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인적·인적망을 확충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마을이장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을 이른바 명예 사회 복지 공무원으로 위촉했으며 읍면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구성하고 주거환경개선, 식료품지원, 자활지원 등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 사업을 추진해 수혜자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민간자원이라 할 수 있는 관내 주민, 기업 등을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과 효율적으로 매칭할 수 있는 연계정책 추진도 빛났다.

그 중 평소 보훈가입이 여의치 않은 저소득 주민 중 만16~65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500명 전원을 대상으로 우체국 공익보험인 '만원의 행복' 보험 가입을 도입해 추진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기업인과 독지가 등의 후원을 지역 복지서비스로 연계해 복지체감도를 높인 특수사업으로 주민들의 큰 관심을 모았다.



청주시는 5월 29일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한범덕 청주시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개최했다.

“청주시민 주거복지 고충 책임집니다”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

주거문제 상담·정보제공

청주시가 시민의 주거욕구를 해소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운영한다.

시는 5월 29일 문화체육회관 대강당에서 한범덕 청주시장, 하재성 청주시의회 의장, 김덕수 충북주거복지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주시 주거복지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취약계층 등 주거문제에 대해 고충을 겪고 있는 청주시민들을 상대로 주거 복지 상담과 주거복지 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을 담당하는 주거복지 전담기관이다.

충북지역에서 최초로 설치·운영되는 주거복지센터는 상담구 단위로 361(상서동) 문화체육회관 1층(☎ 043-286-7890)에 위치하며, 주요 기능은 주거상담·정보제공 서비스 민·관·자

원연계 주거복지 서비스, 주거복지 교육·홍보사업, 주거복지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주거복지센터는

현장중심의 주거문제 상담 및 정보제공 전문창구 역할을 수행하면서 공공과 민간자원 연계를 통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지원하게 된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청주시 주거복지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에 관한 시의회 동의를 받아,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 4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 위·수탁 협약을 마쳤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앞으로 단편적·획일적인 주거정책에서 벗어나 소득수준별·생애주기별 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를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에 차량 전달

장애인승로프 승합차 등

음성군은 3일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인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장애인승로프 승합차 1대, 장애인리프트 대형버스 1대를 전달했다.(사진)

이날 전달식에는 조병욱 음성군수, 전호찬 음성군 장애인복지관장, 김광석 이용장애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음성군장애인복지관은 재단법인대한성공회 유지재단에서 지난 2013년부터 음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전달받은 차량으로 지역 접근성이 낮아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거동불편 장애인들을 위한 찾아가는 복

지서비스, 안전 확인, 장애인 급식사업 등 지역 내 셔틀버스 운영을 통해 장애인들의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호찬 관장은 “그동안 노후화된 차량으로 장애인 이동 시 안전성 확보에 어려운 점이 많았는데 차량을 지원해주시는 음성군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지원받은 차량으로 음성군 장애인들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병욱 음성군수는 “장애 인권복지에 새 차량을 지원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며, 장애인들이 행복한 음성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음성군장애인복지관에



서는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언어 치료, 장애가족을 위한 가족기능 강화 등 13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5대 차량으로 5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

충주시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만7~15세 대상... 월 4회 지원

충주시가 '아동·청소년 비전 형성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체계적인 사회·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청소년이 자각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 및 청소년

을 우선 선정해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비용은 월 14만 원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일부 금액을 소득에 따라 등급별로 1등급 12만6천원, 2등급 11만2천원으로 매월 지급된다.

시는 초기 상담을 통해 이용자의 욕구나 특성을 파악한 뒤 맞춤형 서비스를 설계해 월 4회 지원한다.

저학년은 위인들에 대한 책을 읽고 업적과 훌륭한 점을 찾아 자신들과 연계해 비전을 갖게 한다.

고학년은 흥미유형과 홀랜드 유형, 성격유형 등을 통해 진로탐색은 물론 미래비전을 품게 하며, 매월 1회씩 사회, 과학, 직업체험 활동을 병행한다.

서비스 종료된 뒤에는 이용자 개인별 모니터링을 실시해 변화된 모습과 사후 지도를 연계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비전형성 서비스를 통해 긍정적 사고와 협동심 및 사회성을 기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는 7월 중 서비스 이용자 추가모집을 계획 중이다.

신청되면 8월부터 12개월 간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청주 영유아박람회 성료

32개 기관참여... 3천명 방문

2019 청주시 영유아 박람회가 지난 15일 장애인스포츠크센터에서 영유아와 가족 등 3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펼쳐졌다. 올해로 9번째로 진행된 이번 영유아박람회는 시소와그네 영유아통합지원청주시센터(센터장 유옥현), (사)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윤비룡), 청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지연)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영유아



청주시 장애인스포츠크센터에서 지난 15일 열린 '2019년 청주시 영유아 박람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복지 관련 32개 기관이 45개 부스를 설치하고 리본공예, 가족역

자 만들기 등 체험행사와 아동발달검사 및 상담 등 각종 검사와 상담을 진행했다.

또 남부 영유아 문화공유하기, 아동권리 등 캠페인과 치어맨스 등 공연이 펼쳐졌고 다양한 먹거리 부스도 마련돼 참가자들에게 다채롭고 의미 있는 시간을 제공했다. 특히 영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사랑과 관심을 갖고 정

성을 다해 양육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씨앗 퍼포먼스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윤비룡 어린이집연합회장은 "영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보육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아이들이 어른들의 따뜻한 보살핌 아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도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주시, 장애인보조기기 렌탈 운영

충주시는 성장기 장애아동의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애아동보조기기 렌탈 서비스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만 24세 이하 장애인증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척추장애 아동·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해 줌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한 후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12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재신청 절차를 거쳐 5회 이상 이용 가능하며 서비스 비용은 등급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최소 월 1만2000원에서 3만 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용자는 보조기기 대여 제공기관을 통해 본인에게 맞는 보조기기를 대여받기 위해 초기 상담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공기관은 이용자(아동·청소년)의 장애유형과

상태를 파악하고 이용자·보호자의 욕구를 조사해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한 후 이용자의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불만처리, 부품교체, 맞춤 보정 등 사후 점검 후 유지보수 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장애아동·청소년의 신체발달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 복지정책과(043-850-5932)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영석 사회부출판·홍보위원장 박상준 편집모교주필 김춘길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043-234-0840 FAX: 043-234-0849

E-mail: cpcsw@chol.com 홈페이지: www.cwin.or.kr

5월 푸드뱅크·푸드마켓 식품기부자 명단

- 푸드뱅크는 소외계층을 위한 식품 나눔 은행입니다 -

- 충북광역푸드뱅크 (주)에스엔푸드, CJ신선 진천센터, GS리테일 발안물류센터, 롯데칠성 광명센터, CJ나눔 계룡센터, CJ슈원빈품센터, 대상 양지센터, 대상 용인저온센터,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북농협, 충북농농협, 나눔축산운동본부, 중원랜드, 한우협회, (주)파낙스, (주)대승푸드, 롯데푸드, 체리푸드, CJ우유포(중평점), 송림푸드, 청주우유, 에버리치, CJ신선 덕평센터, 롯데칠성 대전센터, 중앙제과(주), 롯데네슬레 청주공장, LG생활건강, (주)엘로드림, 송림푸드, 대상 덕평센터, 시아스 청주공장, 영농법인 무지개농장, (주)더불어, (주)피아씨푸드, (주)금강B&F, KGC인삼공사 충북지점, 투썸플레이스, 참맛식품, 라온엘에스, 주식회사 지지코리아
- 청주홍익기초푸드뱅크 동양오츠카충청청주지점, 롯데제과(주)청주영업소, 미늘보쌈, 설악추어탕, 좋은아침, (주)케이씨푸드, 명동보리밥, 삼육우유사부대리점, 좋은아침, 피자천 청주대점
- 청주사랑나눔푸드뱅크 참조은우유, 웰리스(분봉동), 백설우유, 홈플러스

- 스익스플러스, 좋은아침(가경점), 파리바게트(개신점), 파리바게트(북대점), 바누이두, 좋은아침(북대점), 두레주(비하계점), 단킨도너츠(강서점), 팡스팡스, 콜라핀(지웰시티점), 이초국제이커리, 금관마트, 동청우유기, 초이스베이커리, 홀로리안, 좋은아침(성안점), 좋은아침(성화점), 파리바게트(기경대우), 정도너츠, 바로구운빵, 도담영농조합법인, 청주명월, 명성물류, 마거바식품, 자연솔푸드, 푸드글로리, 한솔, 비전상사, 태성우수, 도담, 동고개농장, 제윤우유, 장수우유, 오뚜기대리점, 중앙제과(주)
- 청주드림푸드뱅크 파리바게트(원평점), 분평우성점, 금천부영점, 산남점, 농협하노리점, 용암호성점, 용암현대점, 건영점, 뉴타운점, 율랑간터빌점, 율랑점, 개신점, 수암골 영광의제인, 좋은아침 오송점, 서문우동, 용암서문우동, (주)떡과동경, (주)민영, 김대환베이커리
- 청주제일푸드뱅크 청주제일교회, 한기정복지재단, (주)한백식품, 푸레주르 율랑점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물F&C, 파리바게트 오창중앙점

- 청주새명푸드뱅크 좋은아침오창점, 파리바게트쌍용점, 푸레주르한라점, 푸레주르산업단지점, 기본중은날, 그린하우스과자점, 오창홈마트, 자갈치 민속떡집, 칠떡국합, 평주기독교서점, 전원푸드라, 낙원떡방
- 청주구세군푸드뱅크 주식회사 시아스, 푸레주르 금천장지점, 파리바게트 분평점, 한솔 제2공장, 공전떡집, 금관할인마트, 해신수산, 푸레주르 금천뉴타운, 따베오 베이커리, 행떡&떡집, 유신편백,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맥이랑, 푸레주르 청주용정점, 파리바게트 청주용암역점, 영농조합법인 희여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용암점, 천명영농조합법인, 정수기획(후생사), (주)월드이십일아이치규, 자연연결영농조합법인, 천명, 김기네 생고기정육점, 파리바게트 청주제일점, 주주점, 서울우유치즈, 시아스우유, 푸레주르 분평점, 목행청과, 금관할인마트 율랑점, 청주떡방(주), 무외에 두와
- 청원기초푸드뱅크 (주)우리농, 산과물F&C, 파리바게트 오창중앙점
- 중평군푸드뱅크 거림기계, GS슈퍼 중평점, 계약하우스, 금호솔볼걸비, 서산식품, 좋은아침 율랑점, 파리바게트 내수점, 한그루식품, 오뚜기, 단비상사, 단킨도너츠 중평점, 멜리퀸 중평점, 그린우유, GS25 중평대리점
- 괴산군기초푸드뱅크 진미식품, 괴산잡곡, 신선나포, 신선촌, 운산식품, 제중영약국, 풀무원, 서마숙, 유인숙, 장국회, 따베오베이커리, 푸레주르괴산점, 파리바게트괴산점, 매키로통상, 미미식품, 한살림충북괴산점, 주성베이커리
- 옥천군푸드뱅크 푸레주르 엘마점, 구개네 농이보감, 조마루 갑자방, 독도가든, 행운곡, 미기(한정식), 이기화로, 옥천청담로터리클럽, (주)한일푸드
- 영동나눔푸드뱅크 푸레주르(김홍옥), (주)벨앨유가공
- 보은군기초푸드뱅크 (T. 543-6255)

- 서울우유(보은점), (주)서울향로, CJ나눔재단, 롯데칠성(충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대전중앙물류센터
- 음성군푸드뱅크 CJ푸드빌, 꽃파는아침마을, (주)다농원, 삼원농장, 영랑떡방앗간, 김이박부대찌개, 단킨도너츠(금양), (주)이가지연면, (주)후드원, 김철술머리국밥, (주)맑은해오름, (주)풀무원, (주)맑은식품
- 진천군푸드뱅크 삼진푸드, 푸레주르(성모병원점), 면사랑, 체리부르, 조인, 목우촌, 동원(이천 백떡), 삼육우유, 파리바게트(덕산점)
- 진천나눔기쁨푸드뱅크 파리바게트 진천장관점, 태남 메디스코, 신도식품, 윤지영, 김정식, 리브가방만두편백, 김수향, 멜리퀸(이월점), 에스엔푸드, 자혜식품, 명기떡, CJ푸드빌, 해마로푸드서비스, 파스쿠찌, 행복나 떡집, 이삭식품, 명기떡집, 생가진식품, 맑은해오름
- 충주기초푸드뱅크 고인돌식품, 대하우유, 멜리퀸충주교현점, 떡보
- 의하루, 푸레주르 주덕점, 롯데제과(주)충주영업소, 삼성청과우유, 삼일상회, 서울우유치즈충주대리점, 유원우유, 육사청과, 은해청과, (주)미림농산,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씨,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이름청과
- 제천시푸드뱅크 간국유업, 두리메리제, 롯데제과 제천, 빅달제사푸드, 문우유, 씨알푸드, 오뚜기 제천점, 오뚜기, 대상김치, 푸른촌, 풀말리안, 365힐인마트, 크리스마스, CS코리아, 자미원에프앤씨, 충주청과, 하나로베이커리(충주점), 한이름청과
- 단양군푸드뱅크 진천면사랑, 진천SN푸드, 음성CJ, 음성(주)조인, 충주김치나라, 제천푸른촌, 롯데칠성, 일죽청정원, 제천씨알푸드, CJ 진천, 단양(주)정풍, 단양두순식품, 서울우유 단양대리점, 배리바게트 단양대리점
- 단양나눔기쁨기초푸드뱅크 CJ나눔재단, 롯데칠성(충주, 충주, 대전, 오포, 안성), GS리테일, LG생활건강, 대상(일죽센터), 광주파리크라임업체, 신선초, 하림, 맑은식품, 한돈, 썬데이푸드, 대상청정원

보은군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행

올해 처음 70명 선정... 맞춤형 건강관리 진행 스마트폰 앱 통해 전문가 상담 등 서비스 제공

보은군보건소가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건강위험 요인이 있는 주민에게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소 전문가(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가 언제 어디서나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군 보건소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군민 중 혈압, 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등 건강위험요인이 1가지 이상인 성인 70명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로 선발된 주민에게는 주 1회 건강정보 콘텐츠, 월 1회 건강실리포트, 분야별 전문가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의사,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운동처방사 등 6명으로 구성된 모바일 헬스케어 운영팀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 보건소는 서비스 대상자에

게 스마트 밴드를 지급한다.

이후 보건소 전문가가 개인별 심박수, 운동량 등을 체크해 그에 맞는 영양, 운동 등의 처방을 내리고 관리해 준다.

무료 건강검진도 3회에 걸쳐 제공한다.

대상자는 주 1회 건강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구독할 수 있고, 분야별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덕분에 그동안 이 사업을 진행한 전국 지자체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관리 성공률이 90%에 이른다.

군 보건소는 올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17일부터 선

착순으로 70명 모집한 뒤 올해 말 까지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보은군 거주자나 보은군에서 직장을 다니는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스마트폰 사용자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과 관련한 문의는 군 보건소 건강증진팀(☎043-540-5634, 5625)으로 하면 된다.

김귀태 군 보건소장은 "거동이 불편해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기 힘든 성인을 위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통해 만성질환 위험군의 건강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동군, 다양한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시행

언어·교육·문화·상담 등 20개 프로그램 추진

영동군이 점점 늘고 있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영동 거주 외국인 주민은 1214명으로 군 전체 인구 4만9034명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미 지역사회 핵심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 지역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군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사회 적응과 용화를 돕기 위해 영동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강수성)와 힘을 합쳐 언어,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효율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영동군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3월부터 본격적인 프로그램별 개강식을 시작으로 교육·문화·상담·외부지원·특화사업의 5개 분야 20여 개 단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한 이주여성에게 절실한 자녀양육과 경제적 활동,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정 내 갈등 해소에 중점을 뒀다.

차별과 편견이 없는 함께하는 사회 조성을 위해 세계인의 날 행사, 재능기부 활동 동아리 지원, 요리 교실 운영 등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통합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국을 방문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올해 7가정에 항공료 등을 보조하는 친정 나들이 사업을 추진한다.

초등학교 학습지도, 통·번역 서비스, 모국 국제특송요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국제교류 행사를 원활히 추진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참여해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명예통역관

제도도 운영한다.

이는 결혼이민자 또는 거주 외국인 중 자국어와 한국어 구사가 뛰어난 사람을 명예통역관으로 위촉해 행사와 축제 때 통역과 안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다.

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군은 다문화가족 수가 증가하고 지역사회에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적극적인 사례관리로 다문화가족 복지 실현과 삶의 질 향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다문화가족이 한국문화에 익숙해지는 수준을 넘어 화합과 공감으로 지역사회와 어우러지도록 다양한 지원과 인식개선에 주력하기로 했다.

현재 영동의 다문화가족은 338 가구다. 출신 국가는 베트남 125명, 중국 77명, 필리핀 32명, 일본 21명, 기타 83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외국 국적 동포 등을 포함하면 영동군 내 1214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보은군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 순항

보험증서 출산모 6명에게 전달



12일 정성혁(가운데) 군수가 셋째아 이상 출산모 6명에게 보험증서를 전달했다.

보은군은 12일 6명의 출산모에게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 지원사업' 보험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보험증서는 현재까지 35명의 출산모에게 전달되었다.

2018년 1월 시행된 '셋째아 이상 출산모연금보험지원사업'은 자녀의 출산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보험료를 지원하고 산모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최소 30년간 보장되며, 수령도중 사망 시에는 자녀들이 수령할 수 있는 연금보험이다.

보은군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셋째아 이상 출산모 연금보험 지원사업"은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 대응 및 출산 여성의 노후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보은군은 출산축하금, 전입장려금, 넷째아 이상에 대한 출산장려금, 다자녀학비지원사업 등을 통해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영동군, 초고령화 사회 맞춰 어르신들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행안부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비 11억원 확보

영동군이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비 1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선도사업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과 재난환경을 고려해 발굴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효과와 확산 가능성 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는 미래형 재난안

전 사업이다.

지난 3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아 영동군의 '노인 및 취약계층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동스쿠터 전용로 개설, 안전표지판 설치, 가드레일 설치 등 지역노인들이 이용하는 전동스쿠터의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따라서 오는 2020년까지 전동스쿠터 전용이동로 13km 정도가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영동군에는 570여대의 전동스쿠터와 70여대의 전동휠체어가 이용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지역 인구의 약 30%가 65세 이상 노인인구로 구성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점을 감안, 노인층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7일 정식 개소

선별·진단 검사 등 내실있는 검사체계 갖춰

옥천군 치매안심센터가 7일 정식으로 문을 열어 이 지역 치매안심망이 더욱 두터워질 전망이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기관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1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한 옥천군 치매안심센터는 옥천읍 금구리 가화삼지공원 인근 1326㎡의 터에 지상 2층 규모로 지었다. 터 선정과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지난해 8월 첫 삽

을 뜬 후 약 9개월 만에 맺은 성공적인 결실이다. 치매안심센터 1층(298㎡)에는 상담실과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을 2층(312㎡)에는 건강교실과 가족실, 상담실 등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10명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면서 체계적인 치매 관련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등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한 내실 있는 검사체계를 갖추고, 경증 치매 환자와 인지 저하자 등



옥천군 치매안심센터 개소식이 7일 유관기관과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상별 맞춤형 치매 프로그램을 기존보다 한층 강화해 운영한다. 치매 환자를 위한 쉼터는 물론, 치매 환자를 돌보느라 지친 가족의 정서 치유와 힐링을 위해 따로 마련한 가족 카페도 눈길을 끈다. 이곳에서는 가족프로그램, 자조모임 등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

쳐져 모두에게 활력 넘치는 에너지를 전한다. 치매 치료관리비와 치매 환자 물품 지원, 실종 예방 서비스, 치매 파트너 양성 등의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옥천군은 지난 4월 말 기준 치매 등록 환자 수가 1165명으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4259명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증평군립도서관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지정

증평군립도서관이 군내 제 1호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으로 지정됐다.

증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센터장 연영미)는 11일 증평군립도서관에서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 현판식 및 협약식을 열고 증평군립도서관과 함께 치매 인식 개선에 힘써나가기로 했다.

치매극복 선도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공공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치매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치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앙치매센터와 충북광역치매센터의 심사를 거쳐야 된다.

증평군립도서관은 종합자료실 내에 치매정보도서 코너를 별도



11일 증평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는 증평군립도서관과 협약을 맺고 치매극복선도도서관으로 지정했다.

로 마련하고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매관련 도서를 확충해 나간다. 또 각종 행사 시 치매관련 정보를 알리는 데 앞장서는 등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돕는다.

연영미 치매안심센터장은 "치매가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치매극복 선도기관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괴산군,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사업 시행

괴산군이 불법촬영 카메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를 시작

했다. 11일 군에 따르면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 대여 서비스는 다중이용시설 내 화장실의 상시 점

검체계를 구축, 여성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시행된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기업체, 음식점, 숙박업소, 학교 등 다중이

용시설 운영자다.

대여 희망자는 신분증을 갖고 군청 주민복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대여 기간은 3일까지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15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0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솔지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번 달부터 시작

신혼부부 전세임대 저소득·다자녀가구 우대

2년동안 전국 8개 지자체서... 예산 280억원 투입 지역 보건소 등 전담 창구서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이달부터 2년간 전국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일 전주시에 화성시를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총 8개 지역에서 선도사업 출범식이 개최된다고 밝혔다.

커뮤니티케어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이 시설·병원이 아닌 살던 집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에 통합돌봄 안내창구(케어안내창구)를 설치하고, 올해 총 340명의 인력을 배치해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역 특성에 맞춰 적극적으로 사업 내용과 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포괄사업비’ 형태로 예산을 지원한다. 8개 기초자치단체가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개이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80억원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

질환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와 보건소에 설치된 케어안내창구에 문의하면 자신이 선도사업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 선도사업을 실시하는 경기도 화성시 출범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국민 개인이 본인이 살고 싶은 곳에서 치단체가 올해 하반기에 실행할 세부사업은 총 190개이며,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80억원이다.

선도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노인, 장애인, 정신

소득증빙 간소화·불필요 가점 항목 삭제 등 개정

오는 하반기부터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시 저소득·다자녀가구가 더욱 유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지원이 시급한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입주자 선정 가점항목과 배점을 개선하는 것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유리했던 기존의 규정을 개선해 소득 수준, 어린 자녀 유무 등 주거 지원이 보다 절실한 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하기 위함이다.

신혼부부 매입·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혼인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제공되는 임대주택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인 경우 120% 이하) 가구인 경우 입주신청이 가

능하다.

이번 가점제 개편안의 내용은 먼저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소득증빙 간소화다. 우선, 소득기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이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2점, 70% 이하인 경우 1점을 일괄적으로 부여했던 방식을 탈피해, 저소득 계층에 대한 가중치를 강화한 효과가 있다.

소득 수준 증빙도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복잡했던 이전에 비해 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으로 서류가 간소화돼 신청도 쉬워질 전망이다.

또한 핵심 항목 위주로 가점항목이 합리화된다. 주거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이 적었던 혼인기간·연령 항목과 신청자 대부분이 가점을 획득해 변별력이 적었던 경제활동 관련 가점 항목을 삭제한다. 가점 항목이 간소화되고, 핵심 항목 위주로 배점이 조정되면서 다자녀가구나 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 등은 실질적

인 가정상황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년 입주자의 불편을 야기할 일부 기준과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먼저 소득·자산 합산기준이 일원화돼 청년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신청 시 자산기준을 ‘세대 구성원 합산 자산’에서 ‘부모·본인 합산 자산’으로 변경하고 자산 검증에 위해 형제 개인정보 동의서를 요구하는 등 신청자 불편이 발생함에 따라, 소득 요건과 동일하게 본인과 부모의 자산만을 합산하도록 일원화했다.

아울러 군입대 청년 등 거주기간을 연장해 매입·전세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군입대, 대학소재 변경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 1년 이내에 퇴거후 재계약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현행 최대 2회, 최장 6년 거주)에서 미차감에 안정적 거주를 지원한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에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0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 아동학대범 취업제한기간도 선고한다

개정된 아동복지법 이번 달부터 시행

일정기간 아동복지기관 운영·취업 불가... 재범 위험 차단

지난 12일부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선고할 경우 취업제한기간을 동시에 선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관련범죄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12일부터 시행한다.

이는 종전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에 대한 취업제한 기간(10년)을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해당 법률이 지난해 12월 11일 개

정된 결과다.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유치원·어린이집, 학교·학원, 체육시설, 아동·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제도다.

이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과 재학대 우려를 감안해 아동관련기관에서 아동학대에 노출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한편, 해당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판결이 확정된 사람의 제한기간은 개정법 부칙에 따라 기존에 선고·확정된 형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르게 적용된다.

다만,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법 시행 전에 아동관련범죄를 범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후인 경우 법원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기간을 선고한다.

보건복지부 김우기 아동학대대응과장은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관련 전력자 취업제한제도가 혼란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철저히 안내하는 등 아동이 아동학대관련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저소득 구직자 6개월 동안 50만원 지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의 수혜자는 내년 하반기 35만명으로 출발해 2022년에는 60만명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고용보험, 정부 일자리사업 등과 함께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11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이다. 이 해가 업도록 이름을 바꾼 것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형태근로 종사자, 미취업 청년, 경력 단절 여성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구직자가 대상이다.

이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밑그림이 확정됐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이날 근거 법률인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 노사단체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법 통과를 추진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법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내년 하반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I 유형 20만명, II 유형 15만명으로, 모두 35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을 지원하는 데는 50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혜자를 2021년 50만명, 2022년 60만명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이 60만명으로 늘어나면 실업급여 수급자(140만명 이상)와 정부 재정 지원을 받는 직업 일자리사업 참가자(35만명 이상)를 합쳐 235만명 이상을 포괄하는 중층적인 고용 안전망이 완성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전국 어린이집 3년마다 보육 품질 평가받는다

한국보육진흥원, 업무수행 법정기관으로 출범

평가인증제→평가의무제로... 거부 땀 행정처분

전국 4만여개 어린이집이 3년마다 의무적으로 보육 품질을 평가받는다.

보건복지부는 12일부터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3년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고,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보육진흥원이 법정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어린이집 평가는 어린이집 신청에 의한 인증방식으로 운영돼, 참여를 원하지 않거나 현원 충족률이 되지 않은 곳은 평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평가인증제가 평가의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의무제 전환에 따라 그간 어린이집이 부담하던 평가 비용(25~45만 원)은 앞으로 국가가 부담하는 반면, 평가를 거부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에는 행정처분(시정명령 후 운영정지)이 적용된다.

평가제 시행 첫해인 올해는 특별히 이제까지 평가인증을 한 번

도 받지 않았거나 평가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어린이집을 우선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평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린이집 6500여개소가 향후 평가대상에 포함돼 사각지대 없는 보육서비스 질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평가 항목 역시 종전에 비해 조정된다. 평가항목은 총 79개에서 59개로 축소해 어린이집의 평가 대비 부담을 줄인 반면에, 영유아 권리·안전·위생 등 항목을 필수지표로 지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A와 B등급이 부여될 수 없도록 평가기준을 강화했다.

평가 방식은 종전의 서류위주의 평가를 관찰·면담 등 현장 중심으로 개편해 어린이집의 업무

부담을 줄이는데 중점을 두었다.

평가 결과는 A·B·C·D 등급으로 부여되며, 하위등급(C·D)은 평가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1년 줄이는 대신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전문가 방문 지원(컨설팅)을 실시한다.

어린이집의 평가등급은 아이사랑포털(www.childcare.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이사랑포털은 평가결과 뿐 아니라 보육교사 근무연수, 정월 대비 현원 등 보호자의 어린이집 선택·신청에 참고가 될 만한 필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출범식에 참석한 박능후 장관은 “한국보육진흥원은 법률이 부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더 책임 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기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국민이 보육진흥원의 역할을 체감하도록 하는데 힘을 쏟아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1.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2. 봉사단 위촉 기준

VMS 가입 5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3. 봉사활동 분야

구분	내용
기술·기능	디자인, 벽화봉사, 전기·가스점검, 집수리, 도배, 기능전수 등
상담·정보	법률 및 세무상담, 아동·청소년 등 상담(멘토링), 취업, 창업 등 각종상담 및 정보제공
운영·지원	재활도우미봉사, 재가대상·방문봉사, 행사, 프로그램보조봉사 등
문화·예술	음악, 연극, 무용진행 등 공연봉사, 지역주민 대상 행사진행 등
교육·학습	나눔·경제교육, 장애인·저소득층을 위한 수학, 영어, 국어, 한문 등 학습지도
노력·행정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노력봉사, 청소봉사, 행정 및 사무지원 등
보건·의료	무료진료, 호스피스, 간병, 위문, 운동보조, 병원업무보조 등
교통·환경	교통정리, 차량이동봉사, 지역환경 개선, 재활용 및 환경관련 캠페인 봉사 등

4.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중복지원 불가, 중복사회복지자원봉사대회 참석)
- 자원봉사활동 시간 인정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VMS, 복지넷)
- 참여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

5. 신청 및 문의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부
김민지 코디네이터

전화 043) 234-0840
홈페이지 www.cwin.or.kr

충북도, 사회복지시설 워라벨 실천한다

대체인력 적극 지원... 15명 상시파견인력 채용 등

충청북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휴가가 있는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에 적극 나선다. 충청북도는 지난 2016년부터 충청북

도사회복지사업협회와 협약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경조사, 병가, 연가 등 종사자 업무공백 시 대체인력을 지원하

고 있다. 금년에는 15명의 상시파견인력을 채용해 41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의 신청에 따라 지원사유별로 최대 20일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여름휴가 시기인 7월부터 8월에는 단기파견인력을 추가 지원해 더 많은 시설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홍기은 복지정책과장은 "복지의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동료에게 업무 부담이 전가되고, 이용자에게 대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연가를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천군노인복지관, 13일 발전 방안 토론회

기관 20주년 맞아 노인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모색

고령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인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관 발전 방안

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주제를 끝냈다. 진천군노인복지관은 13일 생

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송기섭 진천군수와 박양규 진천군의회의장, 지역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어르신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관 선암회(회장

민형수) 주관으로 '노인복지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영석 충청북도 사회복지협의회장은 "진천군노인복지관 발전 방안"에 관한 소고 발표를 통해 노인복지관에 특화프로그램 개발·운영과 노인보호사업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거점기관 역할 수행을 주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규창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과 김기복 진천군의회의원, 류기창 생거진천카네이션클럽 회장, 송석호 주민복지과장은 진천군노인복지관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신노년분화육성과 혁신도시 노인복지관 분관설치, 재정 확충방안 모색, 커뮤니티케어 연계사업 협력 등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천군노인복지관은 13일 생거진천종합사회복지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복지관 선암회 주관으로 '노인복지관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충북공공형 특별분과위원회는 성금 6,295,040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충북공공형 어린이집연합회 나눔장터 운영 수익금 전달

3년째 나눔실천... 충북 두번째 나눔리더스클럽 이름 올려

충북공공형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태순/창의숲어린이집)는 18일 충북어린이집연합회 사무실에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6,295,040원을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충북지역에서 아이들에게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함께하는 이웃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공공형 푸른 공학 나눔축제"를 개최하고, 자신에게는 필요하지 않지만 남들에게

는 필요한 물품(장난감, 도서, 의류, 소형가전, 생필품 등)을 사고 파는 나눔 장터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되었다. 충북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2011년에 조직하여 현재 총 84개의 어린이집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2017년 500만원, 2018년 600만원을 충북모금회에 기부하는 등 3년째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또한 충북공공형어린이집연합회는 지난해 8월 충북 두 번째로 나눔리더스클럽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중앙공원에서 가정위탁 홍보캠페인을 진행했다.

숲속책방 행사서 '가정위탁 홍보캠페인'

세이브더칠드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김영입)는 1일 청주중앙공원에서 실시한 숲속책방 행사에서 제3회 가정위탁 홍보캠페인을 실시했다.

'숲속책방'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지역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는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사업으로 진행되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선정되어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중앙공원에서 실시된다.

이 행사에서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청주중앙공원 이용 시민들을 대상으로 예코백 꾸미기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활동을 제공하여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펼쳤으며 주말을 이용하여 함께 나들이 나온 가족들의 많은 참여가 이루어졌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 인식 확산을 위해 지역 내 마트와 지역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2003년 개소하였으며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 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충청북도 지정 아동복지전문 기관이다. 친가정 내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일반위탁가정과 연결하여 일정기간 보호·양육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이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정위탁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탁부모가 되기를 희망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 043-250-1226)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복지재단, 청주복지포럼 창간

복지정책·사업발굴 등 제시 최근 주요 복지동향도 담아

청주복지재단이 복지정책·정보 전문지 '청주복지포럼'을 창간했다.

복지 전문가들의 다양한 정책적 견해와 복지정보 등을 통해 변화하는 복지환경과 흐름을 살펴 청주시에 맞는 복지정책 및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제시하기 위한 '청주복지포럼'은 계간지로 발행된다.

여름호로 나온 이번 창간호는 '아동친화도시'를 주제로 윤혜미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아동친화도시로 가는 길), 박금식 부

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아동권리와 아동친화도시), 정혜숙 충북대 외래강사(아동의 행복감 연구), 서재욱 청주복지재단 연구위원(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청주시의 과제)의 원고를 담았다.

또 한범덕 청주시장과의 대담을 통해 청주시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복지서비스와 복지 비전 등을 들어봤다.

청주시와 각 시도, 중앙정부의 최근 주요 복지동향도 담았다.

남미옥 청주복지재단 상임이사는 "지역민의 복지욕구가 점점 복잡·다양화 되면서 복지정책에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청주복지포럼이 지역의 복지 지평을 확대하고 청주시에 필요한 복



복지정책·정보 전문지 '청주복지포럼'

지정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주가경노인복지관, 어르신 팔순·구순잔치 '눈길'

저소득 독거어르신 7명 지역주민 50여명 참석

청주가경노인복지관(관장 정은경)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28일 복지관 내 '시니어문화살롱, 은하수'에서 저소득 독거 어르신 7명을 대상으로 팔순·구순 잔치를 성대하게 열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팔순·구순 생신을 맞으셨지만 생신상을 받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뜻깊게 진행됐다.

가경노인복지관에서는 지난 4년간 2회(상반기, 하반기) 총 8회 64명을 대상으로 합동잔치를 열어드렸으며, 그동안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칭송과 후원을 받아왔다. 특히 이날 행사는



청주가경노인복지관은 저소득 어르신 7명을 대상으로 팔순·구순 잔치를 진행했다.

김희중 일일점장(가경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의 이벤트 후원금으로 정성껏 준비해 그 의미를 더했으며 팔순·구순 어르신과 가족, 동료 등 지역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장수기원 시낭송을 시작으로 팔순 잔치상, 케이크 커핑 및 선물 전달식, 어린이집 축하공연,

한복사진 촬영, 포토북(액자) 제작 등 다채롭게 진행돼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모 어르신은 "홀로 지내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하며 즐겁게 하루를 보낼 수 있어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충북발달센터, 장애인 삶 향상 위한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충북발달센터)가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인권보호센터 희망동행과 5월 27일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삶 및 권리 보호'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통합적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장애인 인권보호센터·CBCS(Community Based Citizenship System) 희망동행'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지게 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권리구제, 공공후견 대상자 연계,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자립생활지원,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 차별, 인권침해 발생 시 정



지난 27일 장애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공유, 공동대응, 사례회의, 자문회의, 교육 등 지원 및 협조, 발달장애인 중심의 지역사회 공공·민간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 정책개발, 홍보 및 관련 업무에 협력한다.

김형완 충북발달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자와 지역 발달장애인 및 가족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충북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생활 전반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를 하고, 피해 발달장애인 현장조사와 보호조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지원 등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 충청북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0~9)로 문의하면 된다.

돌봄종사자 인식개선 및 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돌봄종사자 건강권 지원사업

사업내용

1. 돌봄종사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집단상담, 미술치료, 웃음치료, 안전교육, 의사소통교육, 호스피스교육, 소모임 지원 및 개발
2. 사회인식개선을 통한 건강권지원
좋은 돌봄의 중요한 요소인 상호 신뢰와 존중에 기반하기 위하여 돌봄종사자를 위한 사회적 관심을 도모
3.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권익옹호
돌봄 인력의 사회권에 대한 입체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협력체계를 구성하여 돌봄종사자의 권익향상을 도모

사업기간 18년 9월~ 19년 8월

충북도내 돌봄종사자(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권 증진과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건강·교육·인식개선·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합니다.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포용국가 아동정책’ 발표

- 아동 보호 · 인권 참여 · 건강 · 놀이 등 4개 영역별 10대 핵심과제 구성 -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보호

문제점: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미흡
 학대 유기 이전 전과 등으로 부모님과 분리되어 보호되는 아동 연간 약 4천~5천 명 발생, 약 4천 4백명 보호(72인) - 50% 미충족 보호율
 학대 평균 50명 아동학대 판정, 2.5명은 아동학대로 사망
 베이비박스 등 유기 아동 26명(72인) / 시군구 아동보호 임무담당자 수 1,2명대 불균
 배치대상 아동 309명(78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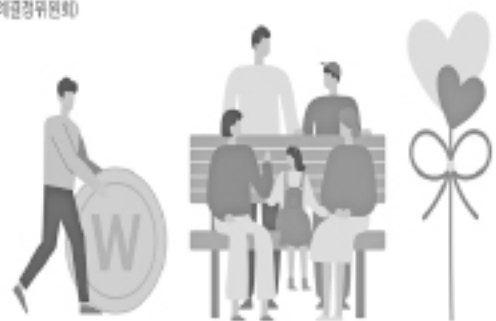
정책방향: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01.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혁신

요보호아동 전담연락
 요보호아동 전담연락 배치
 전담연락은
 ① 원거동 우선보호 원칙 적용을 위한 시애틀서비스 연계
 ② 부모보호 조차시 개별아동 상담에서 우선연락(시애틀연락) 연계
 ③ 원거동 복귀 및 상담(24) 업무 담당

시설기능 전문화 다양화
 경제선지능장애 등 변화된 아동특성 반영한 시설기능 전문화·다양화

아동권리보장원 설립 및 아동중심 통합시스템 구축



02.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면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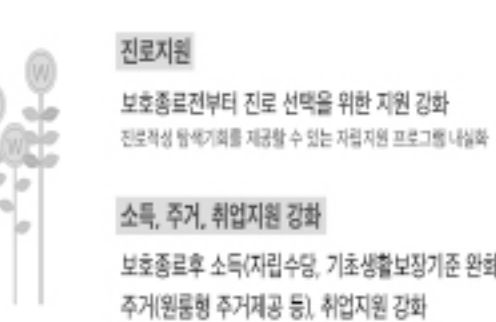
학대조사 공공화
 학대조사 업무를 공무원이 직접 담당
 경찰·학교·의료기관 등 협조체계 구축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재해대 위험소멸시까지 사례관리 집중
 학대 사망사건 전수에 대한 분석평가체계 도입
 학대가정 가족관계 회복 서비스 지원 강화

03. 보호종료 후 자립지원 강화

지립수당
 지립수당 지급을 통해 민력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 강화

진로지원
 보호종료아동부터 진로 선택을 위한 지원 강화
 진로특성 탐색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소득, 주거, 취업지원 강화
 보호종료후 소득(지립수당, 기초생활보장기준 완화), 주거(임대료 지원) 강화, 취업지원 강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인권 및 참여

문제점: 아동은 권리주체로 바라보는 관점 부족
 제도에 대한 권익 침해
 - 아동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75%
 아동들은 건강, 휴식, 참외, 사생활 보호 등 권리의 자유 등에 대해 요구
 - 아동들이 스스로 의견을 표현하고자 함

정책방향:
아이들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법제도 개선

출생등록 및 보호수당
 모든 아동을 공적으로 등록하여 보호

모바일 기반 입산부 지원 서비스
 모바일 기반 입산부 등록신청 서비스 및 정보제공(20)

가정으로 돌아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고품질 입산부 대상 입산-영아기 건강관리 강화(20)

보호(미)입산제
 출생등록

아동권리 보장
 아동권리 보장
 아동권리 보장
 아동권리 보장

친권자의 정계권 한계설정
 친권자의 정계권 한계설정
 친권자의 정계권 범위에서 처벌을 제외하는 등 처벌규정 강화

04. 누락없는 출생등록 및 생애초기 건강관리

아동중심
 논의 결과를 정책과정에 반영

아동정책영향평가
 아동정책영향평가 시행을 통한 아동목소리 반영

아동정책 영향평가

05. 아동에 대한 체벌금지 노력

06.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정부

포용국가 아동정책 10대 핵심과제

아동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영역별 10대 핵심과제

22년 아동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고 아동의 권리가 강화됩니다. 포용국가의 초석인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확대합니다.

정부는 5월 23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안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심의하고 발표했다. 이는 2월 19일 대통령 주재 포용국가 사회정책 대국민 현장보고 시 발표한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 정책은 아동이 양육의 대상이 아니라, 현재의 행복을 누려야 할 권리의 주체라는 인식에 기반을 두고, 아동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포용국가 아동정책에서 제시한 과제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포용국가가 지향하는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부의 아동정책 주요성과

① 아동 투자 확대

- 아동수당 : 만6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소득·재산 하위 90%이하 가구) → 보편 지급(4월) → 7세 미만 확대(9월)

- 임신·출산지원 강화: 고위험출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확대(5종→11종, 1월),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19개소)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국민행복카드 지원금액 10만원 인상 및 1세아 의료비로도 활용 허용(19)

- 아동건강: 어린이집·유치원생, 초등학교 대상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확대(18.9월), 1세(출생 후 1년) 아동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선천성 대사이상 난청 선별검사 급여화

②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확충방식 다양화, 국비 지원 확대, 민관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국·공립 어린이집 201개소, 574개소 확충 및 직장어린이집 지속 확충 추진

-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다양한 방식의 유치원 확충을 통해 '18년 501학급, '19년 3월 702학급 확충

- 보육서비스 질 향상: 보육교사 업무 부담 경감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19년 말까지 보조교사, 대체교사 확대 배치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방과 후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추진

③ 보호 강화

- 위기 아동 조기발견·지원: '18년 55,363명의 아동의 위기를 예측하여 최종 29명 학대판단, 2,333명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제공

- 아동학대 관련 인프라 확충: 아동학대 신속 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및 인력 증원

●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첫째,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운 아동은 국가가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둘째, 가정과 지역사회, 정부가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생애 초기부터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동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돌보겠습니다.

넷째, 아동이 행복하고, 창의성·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학교에서의 놀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건강

문제점: 사전예방을 위한 조기검진 미흡, 아동의 마음건강 지표 악화
 국가검진-학교검진 미흡화 / 스트레스, 우울증 증행 등 아동마음건강 지표 악화
 - 10년 전 스트레스(10대) 44.4%, 우울증(중등) 21.7% 등

정책방향:
생애초기부터 촘촘하게 돌보는 아동건강

07. 아동발달 단계에 맞는 예방적 건강지원 강화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난형검사, 안과검사 등 영유아 건강검진 강화

학생건강검진
 학생건강검진용 국가건강검진 체계의 틀 안으로 통합

아동건강 3대 시범사업
 ① 아동치과주치의, ② 아동모바일 헬스케어, ③ 아동안상질환(아토피·천식 등) 관리 시범사업 추진



08. 마음건강 돌봄지원 강화

마음 역량 함양
 마음 역량을 키우기 위한 창의력 체험활동, 학교 교과과정 편성 등 지원 확대



마음건강 관리 강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보완, 상담교사 확충

국립병원-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연계 강화

포용국가 아동정책 추진방향

놀이

문제점: 지자체별로 개별사업 추진
 일부 지자체 놀이터 개선 사업 추진
 -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 등
 인식과 관심부족, 정보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확산에는 한계
 - 전국 놀이터 10만여곳 중 5만여곳만

정책방향:
창의성과 사회성 계발을 위한 놀이혁신

09. 아동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지역사회

놀이혁신 행동지침
 전문가 - 학부모 - 아동대표

놀이혁신 선도지역
 놀이혁신 선도지역 지정 및 확산
 생활SOC, 도·시·군 등 연계, 애용인사형 추진시 거점 등 인력보급

놀이혁신 위원회
 놀이혁신 위원회 설치
 놀이혁신 행동지침 수립

10. 놀이를 통해 잠재력을 키우는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중심으로 누리과정 거점, 비활동놀이 자유놀이 시간 확보

초등학교
 블록수업용 놀이시간 확보 등 우수사례 확산, 놀이 시간 포함된 교육과정 개발 / 재학연교실·운동장 및 체육관·벽도 등 공간개선

프로그램
 놀이연계 수업 확산, 스포츠클럽, 문화예술 교육 확대 등 확대



복지광장

“혁신성장-복지기반”이 국가안전망



오상영

유원대 경영학과 교수

소득주도성장을 하든, 생산주도성장을 하든, 성장이란 국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질적 성장기반은 노동과 자본이다.

그리고 노동과 자본의 힘은 사회적 안전망의 견고성 수준으로 결정된다. 그러므로 성장과 분배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보완관계인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보편적인 사회적 안전망은 공평, 공정, 기회 균등을 통해 성숙된다.

역사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은 빈곤 대상의 전유물로 생각하였다. 기원전 로마 시대의 ‘소맥법’, 고구려 시대의 부경이라는 구휼 정책, 신라 시대의 환과고독(鰥寡孤獨)에게 의류, 곡물, 관재 등을 지급하던 일종의 복지 정책을 보면 빈민에게 지원하는 정책이었다. 이처럼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정책은 복지적 성격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안전망은 빈민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는다.

생산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에게 투입하는 일종의 원자재이다.

그러므로 혁신 성장의 산출결과는 복지기반 구축에 재투자되어야 하는 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안전망 체계가 국가의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기반의 핵심이 되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싱크탱크인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얼마 전 ‘복유럽 복지모델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SGI는 보고서에서 복유럽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성장, 고용, 분배 면에서 훌륭한 국가로 설명하였다. 특히 복유럽의 복지 정책의 핵심이 혁신성장을 통한 복지확대라고 밝혔다.

즉 복유럽 경제성공 비결은 “혁신성장-복지 확대 선순환”이라고 제안하면서 혁신으로 성장 동력과 복지 재원을 마련하고, 일하는 복지를 기반으로 선제적인 복지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러한 복지 개혁은 국가별로 유형이 다르겠지만 유럽의 모델로 소개된 내용은 금융·재정 위기를 감안하여 강력한 재정개혁, 복지지출 삭감, 국민 부담 감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 추구였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정책은

예산 확보를 시작으로 논의된다.

물론 재정으로 복지 문제를 풀어난다면 단순하고 쉬울 수 있다. 그러나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장기적인 투입과 산출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계속되는 투입보다는 결과물이 재투입되어 지속적인 산출물을 생성해야 한다.

그것은 복지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는 체계가 될 수도 있고, 공유복지 플랫폼을 다양하게 구축하여 복지기반 공유를 확대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적 복지체계 및 시스템의 전문성, 4차 산업을 주도할 신기술의 활용, 성장과 복지 기반의 지속적 선순환 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앞으로 한국사회는 복지 대상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다.

비율적으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만큼 사회안전망이 책임져야 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종류도 다양해질 것이다. 따라서 혁신성장과 복지기반이 선순환 할 수 있는 국가안전망시스템이 매우 필요하다.

정신건강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연현진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예를 들면 심장질환 유병율을 상승하게 하고 위장질환도 높아진다.

이와 함께 정상 각성-수면 주기의 사람들과 생활리듬이 다르니 만물이 쉽지 않아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직업만족도가 떨어지니 이직이 잦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동의하지 않나요? 교대근무자나 야간 근무자는 규칙적인 식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식사를 거르고 일이 끝난 후에 혼자 폭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성인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처럼 교대근무가 신체건강, 정신건강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수면입니다.

우리의 몸은 저녁에 쉬고 잠을 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가 야간에 근무할 경우는 반대 생활을 합니다. 뇌는 빛이 들어오면 낮이라고 인식합니다. 따라서 반대로 수면을 하게 되는 경우,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시간으로는 많이 잔 듯하나 항상 수면이 부족하다 여겨지고 이는 또 만성피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경험합니다.

야간근무는 주간근무에 비해 높은 주의 집중력과 노동 강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쉽게 고갈됩니다. 또한 기력이 없고 쉽게 피곤하며 사소한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리고 두통, 허리통증과 같은 신체적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번아웃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교대 근무자들은 번아웃 증후군에 취약합니다.

교대근무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교대근무 혹은 야간근무를 피하는 것이겠지만 이제 교대근무와 야간근무는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근무를 하기 전, 근무하는 동안 적절하게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교대근무를 하는 당신 누군가의 즐거움과 건강, 안전을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할 수 없으면 다른 방법으로 본인의 즐거움과 건강, 안전을 위한 것을 찾아야 합니다.

마음도 바쁘고 몸도 바쁘고 정말 정신없이 2019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도 정말 아름답고 바람도 상쾌한 날이 지속되고 있어 몸과 마음에 위로를 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대부분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 것을 정형화 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많은 현장에서 제한들이 사라졌고 이로 인해 다양한 형태로 일을 하는 모습들이 생겨났습니다.

사회복지현장도 마찬가지로 교대근무, 탄력·유연근무, 야간근무 등의 모습이 일상화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근무는 수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수면은 인생의 1/3을 차지하는 중요한 인간행동 중 하나입니다.

수면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보존하고 체온을 조절하는 등 항상성 유지 기능을 하며 활동 중 발생한 피로와 손상을 회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수면 중에는 우리가 학습한 다양한 기억과 정보를 강화시키고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합니다. 그런 수면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수면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은 24시간 리듬에 맞추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대근무자는 각성과 수면의 생체리듬이 계속 바뀌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신체에 큰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어 신체에 전반적인 변화를 초래합니다.

현장의 목소리

어려운 사람만 돕는 것이 복지는 아니다



김상수

청주행복네트워크 과장

작되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던 시기만 해도 복지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한 단어였다. 그 당시 복지는 의식주만 해결하면 되는 일차원적인 부분이었다. 우리 조부모, 부모 세대에서는 잘 입고, 잘 먹고, 잘 자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쌀밥을 먹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잘 수 있는 내 집만 있으면 복지를 누리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 물론 내 집 마련은 현대 사회에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하다.

하지만 경제가 발전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복지가 충족되는 시기는 지났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먹고, 입고, 잠만 잘 자는 걸로 복지혜택을 다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몇 년 전 저녁이 있는 삶이라는 표현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간적 의미의 저녁이 아니라 저녁이라는 복지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제 복지는 우리 삶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아직도 복지를 경제적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한다. 어려운 사람만 도우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매우 안

타까운 부분이다.

그들은 항상 경제가 좋아지면 그때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도 늦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묻고 싶은 게 하나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과연 언제쯤 좋아질까?

한국전쟁 이후 한강의 기적을 일구던 산업화 시기, 국제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해주는 나라, 수출 세계 6위, 개인소득 3만 달러 시대가 된 지금에도 우리나라 경제는 항상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조금씩 복지국가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 몇 년 전 한참 논란이 됐던 무상급식, 무상교복, 무상보육 등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되지 못한다. 2007년 한 대선후보는 결혼하면 집을 장만해주고,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주고, 기초연금을 획기적으로 올린다고 했을 때 많은 국민들은 헛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이 공약들은 더 이상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는 알 것이다.

몇 년 전 한 신문의 설문조사에서 우리나라사람들이 가장 살고 싶은 나라로 호주, 일본, 캐나다, 핀란드, 스웨덴 등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좋은 나라의 조건으로 1위가 복지가 잘되어 있는 나라라는 답변이 70%가 넘었다.

물론 공짜는 없다.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게 정부에서도 효율적인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베네수엘라, 그리스처럼 잘못된 정책과 무분별한 지출로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괴테는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고 했으며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 간디는 “방향이 잘못되면 속도는 의미 없다”라고 하였다. 속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우리나라가 정확한 방향의 보편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희망해본다.

기고를 받습니다.

- 사회복지 기고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활동하실 원하시는 분은 전화 (☎043-234-0840~2) 또는 이메일(cpsw@chol.com)로 문의 바랍니다.

IMF 이후 최저! 한국경제, 최악의 상황! 복지예산 사상 최대!

신문이나 뉴스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이다. 경제와 관련된 부분인 것 같지만 복지지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말이다. 경제논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경제가 좋아지면 복지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말이다. 물론 일리는 있다. 경제 규모가 커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그만큼 복지지출도 늘어날 것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시

법률복지의 새 장을 여는

무로 법률홍담터 사업 안내

변호사의 자격을 갖춘 변호인이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을 비롯한 서민에게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복지” 제도입니다.

<p>지원내용</p> <p>법률상담 및 정보제공과 법교육, 구조알선과 법률문서작성 등 소송 수입 없이 가능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p>	<p>서비스 제공대상</p> <p>기초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지역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p>	<p>도움 받을수 있는 분야</p> <p>근로관계 및 임금, 채권 및 채무, 상속 및 유언, 이혼·친권·양육권, 손해배상,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생활법을 전반입니다.</p>	<p>법률서비스 제공</p> <p>원명안 변호사(법무부 인권구조과)가 담당합니다.</p>
---	---	---	--

서비스 신청은 시 간: 월~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 이메일: wma7259@naver.com
 사무실: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0호 법률홍담터

시·군·구 법무부 · 충청북도 ·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이 달의 법률상식



원명안 변호사

Q. 최근 뉴스를 통하여 이혼한 전 남편에게 살해를 당한 여성의 사진을 접하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남편의 잦은 폭행으로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현재 이혼을 준비 중입니다. 이혼준비 중인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먼저 배우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파출소 등에 폭행을 이유로 신고를 하여 자료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폭행의 정도가 심하고 반복된다면 경찰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

가정폭력과 임시조치

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주거나 직장 등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전화 연락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내용으로 임시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 제도가 있는데, 임시조치와 비슷한 내용의 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임시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보호처분이나 피해자보호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 위와 같은 조치로 신변안전이 미흡하다면 여겨질 경우에는 법원에 신변안전조치 청구를 별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사동정

권태업 한국노인복지중앙회장 취임

권태업 회장(서충주노인요양원장)은, 5월 28일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제21대 회장 취임식을 가졌다. 권태업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 사회의 문화적 삶의 척도는 노인복지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노인복지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10년째 1위이고, 노인 자살률 또한 1위라는 사실이 이를 시사한다"고 말하고 "진정한 노인복지를 찾는 신뢰받는 중앙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

우렁각시봉사단, 반찬배달 봉사활동 진행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소속 우렁각시봉사단(단장 조경옥)은 지난 6월 7일 청주시에 위치한 흥년골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반찬배달 봉사활동을 하였다. (사진)

우렁각시봉사단은 2017년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되어 매주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경옥 대표는 "봉사자들이 할 수 있는 재능으로 어르신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싶었으며, 앞으로도 봉사에 열심히 임해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들어가겠다." 라고 포부를 밝혔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 봉사활동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



복지정보 제공

[KT&G복지재단]2019년 상상펀드의료비지원(아동)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일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사회복지기관에 소속된 만 18세 이하의 저소득(차상위, 수급, 일반저소득) 아동 · 청소년
- 지원내용 :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KT&G 임직원 모금을 통해 최소보장지원금 300만원 ~ 최대 500만원 지원
- 선정발표 : 매일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일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
- 온라인 사연신청 : 재단홈페이지(www.ktngwelfare.org) > 사업안내 > 인터넷복지사업 > 상상펀드의료비지원사업 > 사업안내 탭 페이지 하단의 [의료비지원 신청] 버튼 클릭
- 참고 : http://www.welfare.net

[KT&G복지재단]2019년 캥거루의료비지원(성인)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매일 1일 ~ 20일, 연중상시 진행
- 신청대상 : 의료비가 필요한 저소득 2인 이상 가구의 가장 또는 보호자(20세 이상 성인)
- 지원내용 : 치료비 · 수술비 · 재활치료비 · 보장구 구입 등 의료에 관해 병명 제한 없음. (단, 간병비 제외)
- 지원금액 : 온라인모금액을 수어 · 점자 · 틀린그림찾기게임 점수후원액과 합산하여 지원되며, 최대보장금액은 100만원으로 지원됨.
- 선정발표 : 매일 마지막주 중 발표
- 신청방법 : 매일 20일까지 온라인 사연 신청
- 참고: http://www.ktngwelfare.org/business/kangaroo

[아이들과 미래재단]2019년도 아동 · 청소년 의료비 지원사업(리브아이)대상자 모집

- 지원내용 : 고액의 의료비로 적절한 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에게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

- 접수기간 : 2019년 2월 ~ 11월(상시접수)
- 지원대상 :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 청소년 48명(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당해연도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 가정
- 지원금액 : 1인 최대 300만원 한도 내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방법 : 사례관리가 가능한 기관을 통해 신청서류 메일 제출
- *개인신청 불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병원, 학교 등)
- 신청서류 : 공문1부, 사업신청서1부, 지원신청서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동의서 1부, 의료적 상황 확인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아동 기준)가족관계 증명서 1부, 가구 소득유형에 따른 증명서류(해당자)
- *신청서 및 제안서 서식은 재단 홈페이지(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사용
- 참고 : http://www.kidsfuture.or.kr

[한국의료자원재단]저소득 전자산업 재해 근로자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 · 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
-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를 포함(산재승인 여부 무관)
- 지원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4인가구 기준 월소득 4,614,000원 이하)
- 지원내용 : - 치료비(간병비 포함)지원
-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건강유지 · 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입원,통원하는 의료기관 사

회복지사 또는 담당자에게 문의

- 문의사항 : 한국의료자원재단 : 02-6212-9753, 02-6212-9755
- 참고 : http://support.komaf12.org
- [희망나눔 주주연대] 희망나눔 의료/생활비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 저소득층으로 환자가 있는 사회적 ·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가정(소득수준의 경우 차상위계층 포함)
- 청소년 가장,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등
- 신청기간 : 상시
- 신청방법 : 본 기관 홈페이지 신청접수 (홈페이지 상단 '희망나눔' - '사업제보 및 후원신청'을 통한 제출)
- 제출서류 : https://www.bokji.net 홈페이지 참조
- 심사 및 선정절차 : 추천 및 신청(접수 및 심의(후원 및 사례관리(돌봄))
- 문의 : 희망나눔 주주연대 / ☎ 02-3789-2555 / 이메일 : hope@hopeon.or.kr
- 참고 : https://www.bokji.net

[따뜻한 동행] 제2회 장애인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상금 5,000만원)

- 접수기간 : 2019.6.3.(월)~7.19(금) 24시
- 지원내용 : - 총 상금 5,000만원(2개팀 선발)
-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지원(가능)
- 사업기간 : 협약체결 후 1년 이내
- 지원규모 : - 선발 : 최종 2개팀 선발
- 상금 : 총 상금 50,000원원 내에서 신청 금액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 대학생(팀/동아리)
-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 신청방법 : 따뜻한 동행 홈페이지(www.walktogether.or.kr)
- 문의 : morejobs@walktogether.or.kr

손JOB아 줄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따뜻한 동행을 꿈꾸는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접수기간 | 2019. 06. 03(월) ~ 2019. 07. 19(금) 24시

지원내용 | • 총 상금 5,000만원(2개팀 선발)
•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 사업성과에 따른 추가 사업비 지원(가능)

지원대상 | • 대학생(팀/동아리)
• (예비)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소셜벤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자활기업

신청방법 | • 따뜻한동행 홈페이지(www.walktogether.or.kr) 공고 참조

복지/만/평

치석

이창신 www.bokmani.com



적폐는 치석과 같아서 놔둘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자원 봉사자 모집

▶ 컴퓨터 교육 봉사

관리센터 : 청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75-7411

▶ 소그룹 프로그램 보조

관리센터 : 해원장애인종합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95-2505

▶ 이미용 봉사

관리센터 : 즐거운생활재가노인복지센터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16-1365

▶ 초등학생 학습지도

관리센터 : 한빛지역아동센터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37-1487

▶ 경로식당 봉사

관리센터 : 음성군노인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883-2470

▶ 학습정서지원 멘토링 봉사

관리센터 : 충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857-5960

▶ 녹음도서 모니터링 봉사

관리센터 : 무지개도서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37-5544

▶ 청주YWCA 행정보조

관리센터 : 청주YWCA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65-3700

▶ 도서관 도서 정리

관리센터 : 충청북도교육도서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67-4590

▶ '세발자전거' 멘토 모집

관리센터 : 어린이재단 청주시사회복지관
활동기간 : 6.1 ~ 7.31
전화번호 : 043-250-1226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 연중
전화번호 : 043-234-0840~2
*자료출처 : www.vms.or.kr